

# 정토회, 핸드폰으로도 만나요

## 일반 휴대폰도 가능... 내년 특화 서비스 계획

정토회가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맞춰 핸드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일반 휴대폰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12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해 정토회에 접속하면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대화와 부처님 교화 이야기, 오늘의 경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토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했던 다양한 서

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휴대폰의 경우 '\*9191#888'과 'show' 버튼을 누른 뒤 폰피클업을 다운 받으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올레마켓에서 라이프스타일에 접속 후 폰피클업 어플을 다운 받아 설치하면 된다. 현재까지는 KT 이용자만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통신사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아이폰 사용자도 내년 경에 지원 가능하다. 정토회의 모바일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홈페이지의 메뉴를 핸드폰

을 통해 볼 수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토회도 내년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더욱 늘어나면 모바일로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나영 미디어팀 팀장은 "인터넷을 능가하는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 모바일 이용이 강화되면 새로운 포교 수단으로 정착될 것이다. 내년에 특화 서비스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민추본, 독자적 대북 지원 길 열었다

### 대북지원지정단체 통일부 승인 연평도 사태로 교류 경색 우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지정단체' 승인을 받아 독자적 대북 지원의 길을 열었다.

민추본은 그 동안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창구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1월 22일자로 통일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단협을 통하지 않고도 독자적 대북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개인, 기업, 법인과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물품을 전달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인도적지원사업도 참여할 수 있다.

통일부는 대북지원지정단체 승인을 심의하면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과 안정적 복속 지원 단체, 승인 신청 단체의 위상과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2000년 6월 창립된 민추본은 그 동안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 등 북한과의 다양한 민간 지원과 교류를 펼쳐와 무난히 승인을 통과했다.

민추본은 대북지원지정단체 승인 후 보건·의료 분야의 지

원을 계획했다. 그러나 승인 직후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경직되면서 지원이나 교류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재산 민추본 기획홍보계장은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끊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남북 화해를 위해서 민추본은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추본은 올해 진행한 '평화통일정치순례'에 대한 평가 세미나를 12월 15일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날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 네트워크 강화와 다양한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미에 민추본 주임은 "설문조사 결과와 여러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대중통일 사업으로 더욱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삼성현마저 무산돼선 안돼”

### 정호완 삼국유사학회 대표, 종교간 화해 협력 강조

대구 팔공산역사문화사업이 무산된 이후 경산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사업에 대한 개신교계의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신교계의 무분별한 종교편향에 지역 학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호완 대구대 명예교수의 종교화합에 대한 바람을 들어보자. <편집자주>

동북공정을 잘 아시지요.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를 저네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 기술을 다시 하는 작업이 동북공정입니다. 요즘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현상하려는 과제들이 불교계와 학계이며 사업의 진행을 저지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동북공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예가 바로 대구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사업 무산과 요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경산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사업 저지를 위한 활동입니다.

10월 26일 경산에서는 경산시와 대구대 양자 간에 원호(元號)와 설총(薛聰), 일연(一然) 삼성현(三聖賢)을 현창하는 사업의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 교환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설총

의 생애와 학문'을 주제로 삼성현 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삼성현이 모두 경산 출신이기에 이를 기념해 역사문화공원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삼성현은 불교계 인물을 넘어 한국역사에 길이 남을 스승입니다.

본 발표가 끝나고 종합토론이 시작된 뒤, 경청기독교연합회의 삼성현 대책위원회 소속 어느 목사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어용교수 물러가라" "삼성현 연구를 해체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동석했던 회원들과 함께 연호를 하며 학술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자리에 있던 지역의 유림들과 일부 시민들의 항의로 장내는 안정을 찾았고 대책위 소속 다른 목사의 사과로 회의는 이어졌습니다.

국보 중 54%, 보물 중 60% 이상이 불교 문화재입니다. 신라와 고려는 국교가 불교였고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국민이 불자였습니다. 삼성현의 역사·문화적 현장을 반대하는 분들의 조상들도 모두가 불자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국가 정책이나 지자체 문화사업이 불교 포교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역사문화적인 부분을 살려 우리 조상들의 일을 기리고 지역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전승하는 일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템플스테이 같은 문화 사업은 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품격 있는 도시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서 비롯되는 인적자원과 오랜 역사에서 오는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갈등을 넘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가 하는 상식에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혜를 모으고 문화산업의 뿌리와 줄기를 키워갈 시기입니다.

개신교 문화도 그 나름으로 존중되고 이를 잘 살려야 합니다. 한국 근대사의 교육 문화에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었습니까. 종교갈등을 넘어서 우리 힘과 지혜를 더불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갈등을 넘어 평화를 가꾸고 길러 감이 흥익(弘益)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정호완 대구대 명예교수 (삼국유사학회·삼국유사사업위원회 대표)

### 100자 뉴스

#### 도선사, 군법당 건립기금 1억원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는 12월 20일 아름다운동행에 육군훈련소 신축불사 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군포교 거점이 될 군법당 완공에 힘을 보태 고맙다"고 말했다. 육군훈련소 신축불사기금은 22일 현재 50억 9418만원이 모였다. **노덕현 기자**

#### 신흥사, 108인연만들기 선포

속초 신흥사(주지 우승)는 12월 17일 2010 자비나눔대법회에서 '108 인연만들기'를 선포했다. 108인연만들기는 신흥사 신도 108명이 지역 108세대와 1:1 인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자비나눔 프로그램이다. 속초 마레몬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1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지역 내 저소득계층 300세대와 속초 70개소 경로당에 8000만원 상당의 쌀·라면 등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 제2회 승만보살 10대원(大願) 수계법회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연구회(회장 이인자)는 12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회 승만보살 10대원(大願)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승만경>을 공부한 여성불자와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80여 명에게 수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포교원 원장 해홍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진행된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거향찬, 청성, 청사, 개도, 참회, 연비, 귀의, 선계, 계점수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나 기자**

#### 제1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개최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3일 네팔 카트만두 대통령궁에서 파르마나다 지하 네팔 부통령과 제1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 개최 협약을 조인했다. 제1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은 네팔·한국불교도가 공동 주최해 2011년 5월 22일 네팔 톰비에서 열린다. 추산 동참인원은 약 5만 명으로 한국에서는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올림픽대회 개최를 기념해 톰비에 25m 크기의 아기부처 탄생불상을 조성키로 하고 동참불자를 모집하고 있다. (053)325-0400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이근무)은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의 정비를 추진한다. 법천사지는 2001~2007년 발굴조사를 거쳐 '법천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문화재청은 2008년부터 법천사지 정비를 준비해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발굴이후 방수천막으로 유적을 덮어놓으면서 불가피했던 경관 훼손과 문화재 탐방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 문화재청, 원주 법천사지 정비

문화재청(청장 이근무)은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의 정비를 추진한다.

법천사지는 2001~2007년 발굴조사를 거쳐 '법천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문화재청은 2008년부터 법천사지 정비를 준비해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발굴이후 방수천막으로 유적을 덮어놓으면서 불가피했던 경관 훼손과 문화재 탐방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요법

###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 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욕의 원리로 목욕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햇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햇 반신욕기는 웃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하잖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리건강(주)는 철,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든 광물질 30여종(특허획득 제10-096707호 발명)의 명칭 '세라미 전기발열체 및그제조

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햇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 한의원, 산후조리원, 복지원, 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가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했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햇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설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반신욕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가능성을 갖는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종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햇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제작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리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리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삼복 저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붕소가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